재가지도자 '전법사' 저출가 대안

〈轉法師〉

제1회 혜원정사 시민포럼서 전법 의미 되새겨

출가자 감소가 극심해지는 현대사회에 단순히 부처님 가르침을 대중에 전하는 전법 포교의 역할을 넘어 재가자들이 직접 법륜을 굴릴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포교사들이 일선 포교현장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체득하고,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할 때 효과가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재가지도자 차원의 '전법사(轉法師)' 필요성이 대두됐다.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12월 10일 혜원정사 교육관에서 '제1회 혜원시민포럼-가까이 더 가까이, 전법의 동행'을 개최했다.

이날 '전법사의 현실적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백도수 능인대학원대 교수는 "이전의 전법사, 법사는 법을 설하고 전하는 자라는 사고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지금 전법사는 시대 흐름에 맞춰 개인, 단체,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하고 정법을 실현하는 동행자로 자리매김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승가 중심, 사찰경영 중심의 불교가 전문가 중심의 불교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재가전문가 양성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시대에 부응해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혜원불교교육원의 교육방향은 새로운 희망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현재 혜원불교교육원은 자체적으로 전법사(轉法師)를 양성 중이다. 혜원불교교육원 전법사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자기 수행) 5년과 실천과정(깨달음의 사회화) 5년, 총 10년이 소요된다. 전법사 과정은 기존 종단에서 운영하는 포교사 양성 과정을 수용·계승하되 1년 과

감소세 극심한 출가 현실
轉法師, 양성은 미래 해답
재가지도자 10년 과정 운영
"新 전법시대 문 여는 열쇠"

정인 부동품계 교육과정을 강화해 무분별한 포교사 확대를 막고, 더욱 체계적인 전법에 나서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백 교수는 일반적으로 재가자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사회 곳곳에 불교를 전하고 일반인에게 다가가기 좋은 구조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장례 전법사, 돌보미 전법사, 인공지능 전법사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고 계층화·분업화를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법(轉法)의 교학적 토대'를 발표한 조준호 고려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초전법륜경〉을 보면 붓다는 전법(傳法)이 아닌 전법(轉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며 "부처님의 전법 목표는 중생의 이익과 복지, 행복이다. 전법륜은 전면적이고 역동적인 대사회적 행복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포스트세속화 시대에서 재가불자 지도자상 정립'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재 불자는 △물질자본 중심 불교의 기업화 △공동체 책임망각, 각자도생 △권승의 권력 및 재정 독점 △깨달음 지상주의 △명상 치유 상품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불교 재해석 등 6가지 장애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가지도자는 초기 경전과 대승에서 말하는 지도자상을 넘어 21세기 오늘 현실을 극복할 조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산 혜원정사는 12월 10일 혜원정사 교육관에서 '제1회 혜원시민포럼-가까이 더 가까이, 전법의 동행'을 개최하고 전법사 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포럼에선 △초기불교 문헌에 나타난 전법의 의미(조준호) △전법사의 현실적 구현(백도수) △포스트세속화 시대에서 재가불자 지도자상의 정립(이도흠)이 발표됐다. 논평은 혜원불교교육원장 각성 스님, 전법도량 의장 목종 스님, 윤종갑 동아대 교수가 참여했으며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됐다.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은 "출가하는 스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재가자 역할이 더 많아질 것이라 예상된다"며 "전문 전법사, 바른 재가 지도자상을 제안하고 양성하는데 앞장서고 재가지도자 양성에 도움 줄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하성미 기자

소외된 이웃에게 연탄 공양을…

조계종부산聯, 연탄불공회 봉사로 첫 출발

불자들이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에게 연탄으로 공양을 올렸다. 이번에 마련된 연탄은 대강백 무비 스님의 후원금 500만원으로 시작됐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12월 8일 부산 금정구 서동로에서 33세대에 연탄을 전달했다.〈사진〉 전달된 연탄은 한 가구당 200여 장씩 총 6800장이며, 이 자리에는 회장 심산 스님을 비롯해 사무총장 정관 스님, 사무국장 능후 스님, 기획국장 석산 스님 등 연합회 스님들과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 학부모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여했다.

부산연합회는 무비 스님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탁한 성금 500만원을 바탕으로 연탄불공회를 조직, 금정구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 받은 가구에 연탄을 처음으로 전달하며 시작



을 알렸다. 연탄을 배달한 부산 금정구 서동로 일대는 영세민 주거 밀집구역으로 한 겨울 추위를 연탄으로 이겨내야 할 만큼 열악하다.

회장 심산 스님은 "추운 겨울 불자들의 자비행으로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자"고 관심을 당부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현재 연탄불공회 후원금 모금을 진행 중이다. 후원 계좌는 부산 101-2050-6594-01(연탄불공회). (051)501-7554 하성미 기자

동곡당 일타 대종사 18주기 추모다례

동곡당 일타 대종사의 18주기 추모다례재가 12월 9일 팔공산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 템플스테이관 육화원서 봉행됐다.〈사진〉

부도탑, 조사전 참배 후 △종사열반 △헌향 △헌화 삼배 △생전육성 법어 △행장소개 △문도대표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 추모재에는 회주 법타 스님, 관장 돈명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정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은해사 신도회, 총동문회, 선화여고 학생, 교직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유지를 되새겼다.

동곡당 일타 대종사는 1929년 친인척 가운데 41명이 출가한 신심 깊은 불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1942년 고경 스님



을 은사로 득도하고 동산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은 뒤 해인총림 율주와 조계종 전계대화상을 거쳤으며, 지난 1999년 세수 71세, 법랍 58세로 원적에 들었다. 청정한 수행가풍 진작을 위해 평생 계행을 실천한 스님은 선·교·율을 두루 갖춘 수행자로 한국불교의 선지식으로 추앙받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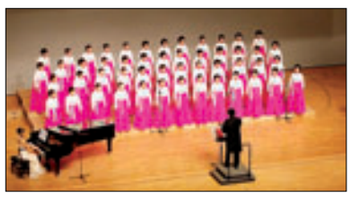
삼광사 화엄합창단 30주년 화합 하모니

부산시민 '어울림콘서트'

삼광사 화엄합창단(단장 정임숙)은 12월 12일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향연 어울림콘서트'를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30주년을 기념했다.〈사진〉 콘서트는 바라춤 공연으로 문을 열어 화엄합창단의 무대와 초대가수 한서경, 삼광사 어린이합창단 및 평양민속예술단의 특별무대가 진행됐다.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울림의 소리로 불법포교를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천진불이 들려주는 맑은 法音

제2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 1월 13일 부산 금정문화회관서

천진불들의 맑은 법음을 세상에 전하는 무대,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가 열린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성원, 이하 합창단연합)는 제2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1월 13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합창단연합은 합창단을 통해 어린이 포교를 활성화하고, 불교문화 확산에 일조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에 발맞춰 최근 부산지역에 어린이 합창단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교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첫 대회에는 4개 사찰이 참가했지만 올해 2개 사찰이 확대 동참해 총 6개 팀이 갈고닦은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지난해 대회 이후 대광명사와 안국


제1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 당시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선원 교육관이 어린이 합창단을 창단해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합창제 참가 사찰은 △부산 관음사 단이슬어린이합창단 △부산 대원사 대원선재어린이합창단 △함양 서암정사 상림어린이합창단 △제주 약천사 리틀붓다어린이합창단 △부산 홍법사 동림어린이 합창단 △울산 황룡사 나모라어린이합창단이다. 참여 어린이는 총 250여 명이며 참가하는 자모 회원은 대략 700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회장 성원 스님은 "안국선원 교육관을 비롯한 여러 사찰이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어린이 합창단을 통한 불교활동 및 포교를 위해 가입을 독려 중"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 영도 대원사(주지 담화림)는 12월 9일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회 선재들의 구법행-대원선재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주지 담화림 스님은 "단원 대부분이 삼귀의 오계를 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구해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했다"며 "올해 여러 공연 및 행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며 홍포하는 합창단이 자랑스럽다"고 소개했다.

대원선재합창단은 2015년에 창단했다. 이후 활발한 문화 공연 및 불교 가르침으로 어린이 포교의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부산여성불자회, 정관희 후원회장 위촉

부산 불교계의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는 부산여성불자회가 송년법회를 봉행하고 다가올 2018년 무술년을 맞아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이하 여성불자회)는 서면 유원오피스텔 더존 뷔페에서 '2017년 송년법회 및 정관희 후원회장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회에는 왕선자 회장을 비롯해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백명숙 부산파라미타협회장 등 회원 5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2017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내빈들의 격려사 및 축사로 진행됐다. 이어 한 해 동안 부산여성불자회 및 불교계를 위해 노력 봉사한 회원 13명에게 봉사상을 수여했다. 특히 여성불자회는 정관희 후원회장을 새롭게 임명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

왕선자 회장은 "정관희 후원회장을 새롭게 부산여성불자회에 모신 것은 정말 좋은 인연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부산 불교계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한다"면서 "2017년 한 해 동안 정말 감사드린다. 더욱 힘차게 정진하는 한 해가 되자"고 격려했다.

한편, 여성불자회는 청소년 장학 사업을 통한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으며 군법당 및 교도소에서 자비나눔 및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원명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설산

감찰원
감찰원장 석월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법주

포교원
포교원장 석도일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광

교육원
교육원장 석유심

교구종무원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충북종무원장 석초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총 무 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지혜
총무부장 석화성
교무부장 석지담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문 도 회
문도회회장 석법현
문도회부회장 석법진
문도회총무 석해안
문도회감사 석지혜

중 앙 원 회
전 원 장 석도현
전 회 장 석지현(경주)
전 총 무 석 정
전 도회회장 주
종 회 회장 정
무 원 장 일
종 사회회장 대
종 원 장 혜
전 회장 한

일시 2 1 1월 12일 금 일 전 1 시
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본 총 원 사 금 ,
시 총 원 시